



연중 제33주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도시락 하나의 미소

매번 느끼는 생각이지만, 전례력의 마지막으로 나아가는 이 시기에는 많은 것을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들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복음만 돌아보더라도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주님께서 종말에 대한 비유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 또한 하늘의 징조보다 시대의 표징을 분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끔 한국 방송을 보면 벌써 따뜻한 패딩 광고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은 벌써 기온이 많이 떨어졌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가는 태국 파타야에는 여전히 찌는 듯한 더위에 시원한 커피 한 잔이 생각나는 나날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이곳 사목지에 부임했을 때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네온사인들이 불빛을 잃었고, 상점들은 문을 닫았으며 길거리엔 노숙자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큰 변화가들이 이제는 슬럼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루는 차를 타고 해변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곳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면서 이런 시국에 많은 이들이 모여서 무얼 하나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한 끼 식사를 제공받기 위한 무료급식을 기다리는 줄들이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간절한 맘에 모여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는 나는 위험한 시기에 많은 이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며 속으로 투덜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본당 교우들과 멀리 한국에서 온 도움들로 좋은 도시락을 만들었고, 급식을 받아 가면서 행복해하는 이들의 모습에 현지의 지역 경찰들도 도움을 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저에겐 마음속 미안함을 씻어내면서, 그들의 미소에 저 또한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시대의 징표라는 것, 크게 거창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우리의 삶에 함께 존재하는 것이 시대의 징표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제정하신 '세계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복음 속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 교황님께서도 직접 우리에게 가난한 이들과 연대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모범과 교황님의 모범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시대의 징표를 마주하고 그것들을 외면하지 않으며 직접 실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효상 알렉산델 신부 | 교포사목(태국 파타야)



제 1 독 서 다니 12,1-3
화 답 송 © 주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제 2 독 서 히브 10,11-14,18
복 음 마르 13,24-32

주일 진레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다”(마르 14,7)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다.”(마르 14,7) 파스카가 있기 며칠 전에 어떤 여자가 값비싼 향유가 가득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마르 14,6)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당신께서 가난한 이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가난한 이를 대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이 여자 사이에 형성된 이 강한 ‘공감’과 유다와 다른 이들이 느낀 불쾌함과 반대되는 그 여자의 도유에 대한 예수님만의 해석은 예수님과 가난한 이들과 복음 선포 사이의 떼어놓을 수 없는 연결 고리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하느님의 얼굴은 가난한 이들을 걱정하고 그들 곁에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가난한 이들이 진정한 복음 전파자입니다. 그들은 복음화되고 주님의 기쁨을 나누며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도록 부름받은 첫 번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마태 5,3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한 이들의 **운명을 함께 나누십니다**. 가난한 이들은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자매들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그리스도의 성사입니다.

종종 가난한 이들은 특별한 자선 봉사가 필요한 ‘부류’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다는 것은 상호 나눔과 참여라는 도전 과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지상의 보물을 모으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재물, 세속적 권력, 허영심을 버리고 가난한 이가 되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 삶을 사랑으로 내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주의적 생활양식은 종종 가난한 이들에게 그들 처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나 가난은 운명이 아니라 이기심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역량의 보완과 역할의 다양성이 상호 참여를 위한 공동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이의 재능을** 귀하게 여기는 **발전 과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유한 이들이 지닌 많은 형태의 가난은 ‘가난한 이들이 지닌 부유함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도 베푸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가난에 대한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통계만 내고 몇 편의 다큐멘터리를 찍는 것으로 감동을 자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난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유의 신장을 향한 창의적 계획을 세우게 하는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다.”(마르 14,7) 이 말씀은 선행의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초대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의 말을 떠올려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비로운 이들은 궁핍한 이들에게 항구와 같습니다. … 항구는 그들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그들이 그 누구든 상관없이 쉬게 해 주는 피난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가난이라는 난파에 시달리는 사람을 보거든 그를 판단하지도, 그의 행실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지도 말고 불행에서 그를 구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손쉽게 얻은 결실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무엇이라도 할 태세를 갖추니다. 그 결과 그들은 공포와 불안, 경우에 따라 폭력까지 불러오는 온갖 방식으로 분노하고 느닷없이 신경질 부리며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한 태도들 자체도 가난의 여러 형태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가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실되이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음적이겠습니까. 우리도 가난하다고 말할 때에만 우리는 참으로 가난한 이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며 그들이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기도 중의 분심: “분심이 든 적이 없다면 기도할 줄 모르는 것이다”

박재찬 안셀모 신부/ 분도 명상의 집

기도에 관한 가장 많은 질문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도 중의 분심’에 대한 것이다. 토마스 머튼은 기도 중에 일어나는 분심에 대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분심이 든 적이 없다면 기도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서 분심은 흔히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첫째로 할 일입니다. 이는 관상 생활의 기본적인 시련 중의 하나입니다.”

(새 명상의 씨) 사실 분심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묵상할 때 일어나는 분심은 우리의 정신과 기억과 상상력을 하느님의 현존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만 작용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랜 관상 생활을 한 이들은 기억과 상상의 기능은 줄어들고 무의식의 문이 열리며, 주님께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된다.

기도 중에 분심이 들면 다시 마음을 하느님께 두고 욕심부리지 말고 편안히 그분만을 바라보면 된다. “분심이 아무리 심하게 일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느님께 집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복잡해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가 하느님을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새 명상의 씨) 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 가르침인가!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하느님은 늘 우리와 함께 성령을 통해 기도하고 계신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분심이 일어나더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려는 마음이며, 하느님을 찾고 알고 사랑하려는 열의이다. 또한 분심이 일더라도 믿음을 갖고, 하느님께서 틀림없이 현존하신다는 생각이야말로 분심의 폭풍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정화하는 가장 안전한 방비책이다.

머튼은 해로운 분심과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심을 구분한다. “진짜 해로운 분심은 우리의 의지를 하느님과 함께하는 깊고 평화로운 일에서 멀리 떼어 일과와 관계되는 근심 걱정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새 명상의 씨) 분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자연스럽게 그분께 다시 마음을 모으고 거룩한 언어를 되뇌며,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간다. 졸음이 오면 다시 그분을 바라보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한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혹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 씀드리고 다시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면 된다. 기도 중에 일상의 걱정이 분심으로 많이 떠오르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자신이 활동에 얽매어 있다는 뜻이며, 활동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표시이기도 하다. 그래서 예전보다 분심이 많이 든다면 주님께 믿음을 두고 자신의 삶을 단순화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런데 우연히 떠오르는 분심 중에는 자신의 무의식이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분심의 순기능이기도 하다. 흔히들 심리치료를 위해 명상을 할 것을 권고하는 이유도 자신이 오랫동안 억압해 알지 못했던 무의식이 기도 중에 의식화되어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린 시절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나 사람이 다가왔을 때 생존을 위해 혹은 자신이 좋게 보이기 위해 부정적인 감정을 억눌러 자신의 무의식 속으로 가두게 된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억압이 많은 이들을수록 가식적이 되고, 가면을 쓴 채 살아가게 되어 참된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자신도 모르게 의식의 표면으로 솟아오르는, 억눌러 놓았던 무의식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은 분심이라기보다는 기도에서 얻어지는 치유의 열매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도 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더 깊이 머무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분심의 순기능에 집착하는 것은 기도를 심리치료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

요컨대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분심은 당연한 것이며 기도를 배워 가는 과정이다. 오히려 기도가 불가능해지고 마음이 돌같이 될 때에 기도와 사랑을 진정으로 배우게 된다. 비록 기도 중에 분심이 들더라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하느님을 갈망하고 그분과의 일치를 원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분심이 일어나면 기도 방법을 바꾸어 보거나, 소리 내어 하는 기도를 바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칭찬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일어서는 가음동성당

황광지 가타리나

숲속의 웅달샘을 찾듯 아파트들 속에 숨은 가음동성당을 찾았다. 골목길을 돌고 돌아 작은 뜰에 닿았다. 평일 저녁미사 시간이 다가오는 때라 성모상의 따스한 불빛이 흐른다. 소박하기 그지없는 본당 건물이지만, 어쩐지 어머니 품속처럼 느껴진다.



맞다, 어머니다!

가음동성당은 창원의 모본당이다. 1977년 용지본당으로 출발하여 1982년 가음동본당으로 이름을 바꾼 창원지역 첫 본당이다. 도시가 제대로 모습을 갖추지 못한 때에 용지공소 함석지봉건물에서 시작한 본당은 가음동에 신축한 지금의 건물에서 기반을 잡았다. 국내 굴지의 창원공단에 힘입어 이곳은 복음의 불꽃이 눈부시게 타올랐다. 창원공단의 발전과 더불어 본당을 하나둘 분가시키는 저력을 보이며 터줏대감 노릇을 톡톡히 했다. 그러나 이웃에 다른 본당 설립이 거듭되고 살림을 떼 내주는 동안 가음동성당은 조금씩 늙고 수척한 형편이 되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새로이 건설되는 지역으로, 더 큰 아파트로 신자들도 자리를 옮겨 갔다. 주변 환경도 낙후하고, 성당 건물도 노후되어 나락으로 떨어진 신세처럼 쭈그러든 것처럼 되었다. 잘나가던 때를 생각하면 보좌 신부 자리가 비어도 소외되나 싫어 괜히 주눅이 들었다.

하지만 성전은 거리두기를 했으나 자리를 가득 채운 신자들로 따뜻하고, 미사를 올리는 시간에 그들의 어깨에 평화가 내려앉는다. 사제와 신자들 사이에 은근슬쩍 미소도 오고가는 듯 어머니의 훈기가 넘실댄다. 미사 후에는 레지오 합동주회가 열려 성전은 성모님 군대로 바뀐다. 코로나시대지만 평일미사 후에 매일 합동주회가 열리니 무장해제란 없다.

새 교구청 건축 다음에는

이창섭 아우구스티노 주임 신부, 조현식 프란치스코 사목회장, 이열자 레지나 부회장, 이우철 야고보 부회장, 차경준 바오로 재건축추진위원장, 손현주 루치아 전례부원, 공유현 아우구스티노 신학생이 좌담회를 가진다. 신학생 참여가 특이했는데,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다 왔으며 복학을 앞두고 있단다. 가음동성당 출신 사제는 이수호 신부, 김태호 신부 딱 두 분이라 3호 사제가 탄생하기를 신자들은 고대하며 이 젊은이를 소중하게 격려하고 있다.



좌담회는 주로 성당 재건축에 대한 의견이 간절하게 오고간다. 현재 성당이 위치한 가음동 4지구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 모두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이다. ‘노후’의 대명사가 된 건물을 새롭게 할 더없이 좋은 기회다. 8월에 행정승인이 난 상황이니, 그 실행이 곧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며 재건축추진위원회의 결연한 의지를 보인다. 2019년 12월에 열 명의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대비해 왔다. 신자들은 작년부터 3년 목표로 목주기도 300만 단 봉헌을 하며 힘을 북돋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음동성당에서는 교구청이 먼저라고 입을 모은다. 지금은 ‘교구청 신축을 위한 기도’를 바치고 성의를 다하여 하루빨리 완공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새 교구청을 봉헌하고 나면 ‘가음동성당 신축을 위한 기도’가 뒤따르게 될 것이다. 신자들은 겸허하게 순서를 기다리며 이어지는 일들을 헤아리고 있다. 40여 년 거둬와서 여기저기 새로운 성전 건립에 대한 부담을 겪어온 것이지만, ‘모두 우리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새 교구청 다음에는 우리 성당이라며!

사목위원들은 어깨가 무거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새로운 성당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며 설렌다고들 한다.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안에는 마무리될 이 일에 전력하며 희망을 향한 공동체를 이루려 한다. 이창섭 주임 신부는 창원의 모본당인 가음동성당이 주차장이 넓은 곳이 되어, 여기저기서 오는 신자들은 마음껏 차를 세우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고 또 즐겼으면 좋겠다는 사랑의 마음을 덧붙인다. 어느 성당이라도 그런 곳이 많겠지만 특히 가음동성당은 아파트를 사이에 둔 골목 주차로 오랜 갈등을 겪기도 했기에 넓은 주차장이 숙원이다.

칭찬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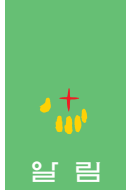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성당”이라는 손 루치아는 빈말이 아니라며 자랑을 늘어놓는다. 티끌만 한 일에도 칭찬이 쏟아지는 분위기라 처진 어깨가 절로 올라간다고 한다. 보잘것없는 살림에도 밝은 웃음이 번지는 가족처럼 서로 바라보고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이곳이다. 그러다보니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자발적인 동참이 모여들어 거뜬히 해결에 이른다.

비단 이 공동체의 사랑은 안으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올해 부임한 이창섭 주임 신부는 사회복지분과와 빈첸시오회 활동이 눈에 들어왔다고 한다. 명절 나눔, 김장 나눔으로 때마다 철마다 이웃으로 마음을 돌리는 정신이 깃들어 있다. 지난 추석에도 신자들의 후원과 빈첸시오 회원의 활동으로 어려운 이웃을 찾아

쌀, 김, 참기름 세트 등을 많은 가구에 전달하였다. 특히 2019년 성탄절 구유예물은 인근 초·중등학교에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올해는 코로나시대를 겪으며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들이 임대료라도 보태기를 바라며 지원하기도 했다. 이는 신자이거나 비신자인 것을 막론하고,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부부가 하는 모임도 활발하고 주일학교 운영도 탄탄한 가음동성당은 가정공동체에서 배어 나오는 따뜻한 온기가 본당공동체를 데우고 작은 뜰에는 언제나 정다운 이야기꽃이 피어올랐다. 그들은 새 성당을 건축하고, 코로나 이전의 복직대는 사랑의 공동체를 꿈꾸며 설레고 있다.





기억할 선종 사제
김한주(마르코) 신부
2001년 11월 21일



교구장 동정

사제 총회와 연수

일시: 11월 15일(월)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견진성사

일시: 11월 21일(주일) 10:30
장소: 고현성당
집전: 교구장 배기현(콘스탄틴) 주교

교구/본당

사제 총회와 연수

일시: 11월 15일(월)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그라츠 자매교구 위원회

일시: 11월 18일(목) 11:00
장소: 교구청

2022년도 신학교 지원자 수시 입학고사(Zoom)

일시: 11월 19일(금)

위원회/기관/단체

마리아사제운동 평신도 체나콜로 11월 기도모임

일시: 11월 22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1층 대강당
준비물: 메세지 책, 미사 준비

기타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전입학안내

전입학설명회: 12월 4일(토) 14:00
겨울진학캠프: 2022년 1월 8일(토)~9일(주일)
대상: 현 초6, 중1/ 문의: 054·338·0530

2022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원서접수: 2022년 2월 9일(수)까지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문의: 02·745·8339
홈페이지: ci.catholic.ac.kr(원서다운가능)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2021 산타가 되어주실래요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힘들게 버티고 있는 우리 이웃들!
12월 25일을 의미 있게 2,500원을 제좌로 보내주세요.
단기모금기간: 12월 12일(주일)까지
후원계좌: 농협 301-0083-8432-91
▶이체 후 복지관으로 연락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 발행)
문의: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055·282·3737

망경동본당 사무장 모집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된 신자, PC 사용이 능하고 운전면허1종 소지자 우대
접수: 11월 28일(주일)까지 도착분에 한함-우편 혹은 방문
제출서류: 응시원서, 본당 사제 확인서, 교적사본 (응시원서 망경동성당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주소: 경남 진주시 천수로 152번길 24 망경동성당(우 52714)
문의: 본당 사무실 055·756·5680
※ 1차 서류전형 후 2차 면접(면접일자 개별 통보)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 후 안전하게 폐기함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

마산가정상담센터는 가정폭력피해자와 그 가족을 상담하여 그들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문의: 055·296·9126/ 297·3288
E-mail: magapok@hanmail.net
카페: cafe.daum.net/magapok
▶상담내용과 상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1월 20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작은 형제회(프란치스코회)	11월 20일(토) 15:00	칠암동성당	010·6608·3217	-

Anna Organ
창원시 진해구 신항동로 225
신항만 부영 3단지 307동 104호
문의: 010 6409 4809

가톨릭마산
교구보 매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문의: 홍보국 055.249.7072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트래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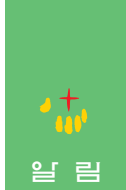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포도잼은 9월 말부터 구매 가능)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신세계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진동본당 제15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방인용(요한)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김이근(율리아노)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이봉남(마리아)
 총무분과위원장: 정광호(요셉)
 재경분과위원장: 손창호(테오필로)
 복음화분과위원장: 박성룡(베드로)
 전례분과위원장: 안복례(아가다)
 구역분과위원장: 권영순(율리아나)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추태임(마리아)
 시설분과위원장: 김정덕(가브리엘)
 가정분과위원장: 송철식(베드로)
 홍보분과위원장: 이경모(라이문도)

산호동본당 제22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손재근(요아킴)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김근소(하상바오로)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백희선(크리스티나)
 총무분과위원장: 강월숙(가브리엘라)
 재경분과위원장: 김태경(아우구스티노)
 전례분과위원장: 신용원(스테파노)
 복음화분과위원장: 강운궁(마리아)
 구역분과위원장: 이예선(마리아)
 사회복지분과위원장: 박정자(모니카)
 청소년분과위원장: 서상렬(세베리오)
 가정사목분과위원장: 전영숙(마리아)
 시설분과위원장: 권택성(스테파노)
 홍보분과위원장: 이수안(스텔라)

진영본당 제32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한상배(바오로)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최효찬(프란치스코)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황숙자(베로니카)
 총무분과위원장: 송계용(바오로)
 재경분과위원장: 강경희(로사)
 전례분과위원장: 이상희(로사)
 복음화분과위원장: 김영자(프란치스코)
 구역분과위원장: 김경애(글라라)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최애숙(말세리나)
 시설관리분과위원장: 김판곤(오네시모)
 청소년분과위원장: 조성률(스테파노)
 홍보분과위원장: 박종택(알폰소)
 가정사목분과위원장: 유기정(베로니카)
 성지관리분과위원장: 오일규(루카)

교구 소식

위령의 날 교구 합동 위령미사



위령의 날(11월 2일)을 맞아 교구 선종 사제와 교구민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가 봉헌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구 합동 위령미사는 각 본당에서 따로 거행되었다. 교구청 사제와 직원 그리고 교구 연례회 임원들은 고성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에서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의 주례로 봉헌하였다.

청년 신앙강좌



10월 31일 청년 신앙강좌 수료 미사가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의 주례로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있었다. 12명의 수료자들은 앞서 있었던 5번의 '신경 과정' 강좌를 모두 수료하였다. 수료 미사에서 교구장 주교는 "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강좌를 수료한 장한 청년들"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청년 신앙강좌는 3년 과정으로 진행되며, 내년 강좌는 '성사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파스카 축제를 지내다(탈출 12,1-13,16)

김영선 루시아 수녀/ 광주가톨릭대학교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이집트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안으로 그들은 야곱이 이집트에 정착한 지 430년 만에 이곳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스물아홉 번째 순례 여정은 이집트의 고센 지방에 사는 히브리 사람들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각자가 히브리인의 가정에 초대받았다고 상상하여 봅시다. 오늘 밤 이집트인들에게는 엄청난 비극이 발생할 것입니다. 파라오의 맏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감옥에 있는 포로들의 맏아들과 맏배까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탈출 12,29-30). 바로 그 순간에 히브리인들의 가정은 파스카 축제를 지냈습니다. 그들은 첫째 달, 곧 우리 달력으로 3~4월에 해당되는 نيسان 달 10일째에 일 년 된 양이나 염소를 마련해 두었고, 14일 저녁 해 질 녘에 그것을 잡았습니다. 짐승의 피를 받아 각자의 집의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두었고, 고기는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먹었습니다. 마짜라고 불리는 누룩 없는 빵은 베두원들이 먹는 피타 빵과 비슷합니다. 쓴나물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파슬리나 셀러리, 로메인 상추 또는 고추냉이 잎을 먹습니다. 그들은 이 밤에 서둘러 길을 떠나야 하기에 허리에 띠를 매고 신을 신은 채로, 지팡이를 쥐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음식은 오직 이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만 먹을 수 있어서 다 먹지 못하고 남은 것은 불에 태워 버립니다. 이날 그들이 나눈 만찬은 주님을 위한 파스카 제사로,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은 거르고 지나가셔서 그들을 구해주셨음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앞으로 그들은 해마다 주님의 구원 업적을 기념하며 이 예식을 행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밤새 그들을 이끌어주셨기에 그들은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밤을 지새울 것입니다(탈출 12,42).

파스카 축제는 주님의 구원과 깊은 연관이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이들만이 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탈출 12,43-49에 따르면, 할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은 파스카 예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집트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게 된 것은 엄청난 특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한 파스카 축제는 이스라엘이 백성이 역사상 최초로 지내게 된 것이어서 아직 외국인은 이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생기기 이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유목민의 관습 중의 하나인 맏아들과 짐승의 맏배를 초봄에 주님께 봉헌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탈출 13,1-2,11-16), 또한 봄철에 새로운 곡식을 수확하기에 앞서 낡은 누룩을 태워 없애고, 햇곡식으로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 먹던 축제(탈출 12,15-20; 13,3-10)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절기와 관련된 축제가 이집트 탈출 사건이라는 구세사와 연결되면서 축일의 의미가 신학적으로 재해석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은 하느님의 구원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시간과 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의 저자는 이집트에서 일어난 열 번째 재앙에 관해 서술하면서, 이 사건의 앞과 뒤에 파스카 축제에 관한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일까요? 성경의 저자는 이집트의 파라오를 징벌하는 심판과 이스라엘의 해방이 전적으로 하느님의 일이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하였으므로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을 심판하는 일에 전혀 가담할 수 없었습니다. 곧 그들의 해방은 폭력이나 무력을 통해 쟁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어린이처럼 히브리인들의 해방을 기념하는 이 잔치에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합시다.